



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 조성된 프란시스코 사님의 '사랑방'.

관심도 참여도 없는 '폴리투어'

광주 설치된 11개 폴리 체험 신청자 3분의 1 불과

유지·관리 예산 제외하면 관광컨텐츠 발굴 어려워

광주시의 '폴리(Folly) 프로젝트' 활성화 전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폴리를 도심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체험 투어는 시민들조차 외면하면서 참여율이 저조하고, 폴리와 연계한 관광 컨텐츠 발굴도 예산 부족으로 업무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시민 삶 속에 녹아나리는 도심 공공시설물의 역할 뿐만 아니라 관광 상품으로도 손색없는 광주의 대표적인 도시 아이콘으로 육성하겠다는 광주시의 '거창한' 계획이 '장밋빛'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2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2012년 광주 폴리투어'를 주진끼로 하고 참가자 모집에 나섰지만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참여율이 저조하다.

당장, 올해 처음으로 광주에 설치된 11개 폴리를 모두 둘러보는 체험 투어가 14일 진행될 예정이지만 현재 신청자는 모집 인원(30명)의 3분의 1인 10명(3가족)에 불과하다.

문화재단은 그나마 이날 오후 20명을 모집, 2시간 동안 일부 폴리를 둘러보고 체험활동을 하는 '집중 투어'일정도 세워놓고 있지만 여전히 단 한 명의 참가신청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전세계 거장들의 작품으로 이뤄진 폴리가 대표적 도심 문화 관광상품으로 발돋움하기는커녕, 첫날부터 투어가 무산되는 '굴욕'을 당할 처지다.

오는 10일 송원고생 95명의 폴리 투어가 잡혀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아시아문화전당을 둘러보려던 계획에 여유가 생기면서 이뤄진 일정에 불과하다.

폴리 인근 주민은 '폴리지기'로 위축하고 건축사무소와 폴리를 1개소씩 연결해 상시적 점검 및 특별 해설사 역할을 하도록 하는 참여 방안도 '발뿐인' 구상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지역 문화계 일각에서는 광주시가 10년 간 전 세계 거장들의 작품으로 100개의 폴리를 조성,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도시 아이콘으로 육성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는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은새암 작은전시' 참여작가·단체 모집

광주여성재단이 북카페 '은새암 작은전시' 참여 작가와 단체를 모집한다.

공예, 회화, 수공예제품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의 제품 등 북카페에 전시 가능한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모집 기간은 오는 6월까지다.

선정된 개인과 단체에게는 작품 및 전시 홍보, 전시작품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광주

여성재단 문화행사 활동 우대, 작품홍보 리플릿 제작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100여권의 책을 구비한 북카페 은새암은 월~금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작은 소모임 공간으로 활용중이다.

재단홈페이지 www.gjwf.or.kr, 문의 062-670-05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11년 Wine Enthusiast 선정 최고의 미국 와이너리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하는 와이너리
웬티의 오너 에릭 웬티와 함께하는 격조 높은 와인 더너에
와인 애호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Reception 19:00
2012. 4. 12(Thu) 19:30
사전 예약제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 예약문의 (062) 525-2111 | 계립동 훌플러스 건너편

보약·홍삼은

북교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감독에게 듣는 영화 '말하는 건축가'

6일 오후 7시 20분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

(고) 정기용 건축가의 삶과 건축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말하는 건축가'가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영화 제작진과 지역 건축가, 관람객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극장은 정제은 감독을 초청, 오는 6일 오후 7시20분 영화 상영 후 관객과의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기존 광주극장에서 진행됐던 관객과의 대화와 달리 지역의 시민단체인 '나무 심는 건축인'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 포럼 형식으로 행사를 꾸민다.

박홍경(나무 심는 건축인 운영위원장) 건축가가 사회를 맡아 이날 행사에서는 신석균(광주대 건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정제은 감독과 공동건축, 정기용의 건축 세계, 영화와 건축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또 다큐를 본 관객들이 생각하는 건축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관객들에게는 정기용씨가 자신의 건축 철학에 대해 쓴 '감정의 건축'을 증정한다. '나무 심는 건축인'은 작은 한 그루 나무가 도시 속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건축인들이 모인 단체로 나무 심는 행사,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시상을 진행하고 있다.



정제은 신석균

광주극장

<http://cafe.naver.com/cinemagwangju>



http://cafe.naver.com/cinemagwangju/

작업 기간은 오는 9일~13일(오전 10시30분~12시, 오후 2시~4시)까지며 9일 모임을 갖고 개인별 작업 시간을 확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광주극장 메일(cine-gwangju@naver.com)로 연락처와 이름을 남기면 된다.

광주극장이 오랜만에 손간판을 제작한다. 간판을 그리는 이는 전국에서 몇 안남은 간판인이인 박태규 작가. 특히 이번에는 박 작가와 함께 일반 시민들이 간판 그리기에 참여할 수 있다.

간판 작업을 하는 작품은 전래 일 열사의 어머니인 고(故) 이소선 여사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어머니'다.

작업 기간은 오는 9일~13일(오전 10시30분~12시, 오후 2시~4시)까지며 9일 모임을 갖고 개인별 작업 시간을 확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광주극장 메일(cine-gwangju@naver.com)로 연락처와 이름을 남기면 된다.

http://cafe.naver.com/cinemagwangju/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故 이소선 여사 다큐영화 '어머니'
박태규 작가 제작... 일반시민 참여

극장 손간판 작업 함께 해요



지난해 공연 작품인 '그해 오월'

'한국무용제전' 김미숙하나무용단 '푸른 가배, 嘉俳' 4일 공연

올해로 창립 31주년을 맞는 한국무용연구회가 주최하는 '한국무용제전'은 전국의 내로라하는 한국무용단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축제다.

한중수교 20주년을 기념해 2일~5일까지 서울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창무회 등 18개 무용단과 함께 중국 무용수들의 무대도 함께 마련돼 눈길을 끈다.

특히 '세계 속의 한국 문화유산을 춤추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강강수월래, 남사당 놀이, 판소리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작품이다.

화유산으로 등재된 8가지 무형문화재를 춤으로 형상화한 작품들을 공연하는 특별한 행사다.

지난해 1980년 5월 광주의 이야기를 그린 '그해 오월'을 무대에 올려 호평을 받았던 김미숙하나무용단이 올해는 강강술래를 소재로 한 '푸른 가배, 嘉俳'를 공연한다. 4일 오후 8시 서울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인 강강술래는 위나 잘 알려진 소재인더라 어떻게 재해석해느냐가 관건. 안무를 맡은 김미숙씨는 푸른

만월과 여인의 생명력, 상생의 상징과 의미를 담아 작품을 구성했다.

1장 달, 2장 강강술래로 이루어진 '푸른 가배'는 8월 보름달 아래 모여 선 여인들의 흥과 신명을 역동적인 춤사위로 풀어낼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는 김미숙하나무용단의 전국 무용제 대통령상 수상작 '회소'로 여자연기상을 받았던 이연정씨가 주역으로 출연하며 정명훈·이수연·최혜진·하시은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한편 '푸른 가배'는 여수엑스포 기간인 5월18일 엑스포 공연장 무대에도 오를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ENTE WINE & DINE VINEYARDS

WENTE VINEYARDS Wine Maker's Dinner

Since 1981 1등 맞춤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Wine List

- Wente Brut 2007
- Wente Riva Ranch Chardonnay 2009
- Murrieta's Well 'The Whip' 2010
- Wente Beyer Ranch Zinfandel 2008
- Wente Reliz Creek Pinot Noir 2008
- Wente Charles Wetmore Cabernet Sauvignon 2009
- Annika 59 Red 2009

골프의 女帝 애니카 소렌스팀의 와인인 애니카 59를 비롯한 7가지 와인과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의 와인과 어울리는 최고의 만찬이 준비됩니다.

농성역
광송간도로
세우리밸리
북교당
한약방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